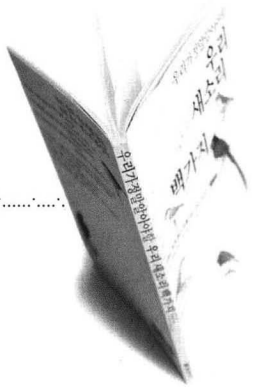


기시감이 아닌 소리의 원적지로 안내하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 느리게 읽기

일흔 한 곡조의 청명하고도 기묘한 울림



청계산 매바위를 눈앞에 둔 숲길에서다. 바람도 숨어버린 겨울산, “피잇, 피잇, 삐비비비비비” 청명한 새소리가 서늘한 낙수로 컷바위에 떨어진 것은. 사위四圍를 둘러보면 새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더욱 명징해지는 소리, “피잇, 피잇, 삐비비비비비”. 멀어져가는 새소리를 쫓다 등산로 초입까지 내려가야 했던 기억이 있다. 날갯죽지 한 끝 보여주지 않고 소리로 나를 이끈 너는 무엇이었나...

기자는 산을 좋아했다. 주말이면 서울 인근의 높고 낮은 산을 어김없이 올랐고, 현관 입구에서 등산화의 끈을 더욱 단단히 묶은 날이면 내쳐 치악산이나 설악산으로 걸음을 옮긴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자가 얼마동안 산을 찾지 않게 된 것은 늘 곁에서 동행하던 J때문이었다. J는 등산로 초입에만 이르면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잔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정상에 다다라서도 잠시 한숨만 돌릴 뿐, J는 분주히 산을 내려가 요기도 하지 않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J의 뒤를 헐떡이며 뒤쫓던 어느 날 기자는, “당신과 이제 함께 산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연둣빛으로 옴을 틉운 느릅나무의 잎이 얼마나 더 진해졌는지, 한 마리의 새소리가 온 산을 울리는 기묘함이 얼마나 섬뜩한지를 모르는 J가 몹시 섭섭했다. 뜨악해진 J의 마음이야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미 J의 등산화 뒤축까지 미워져 버린 상태였다.

그때 그곳이 청계산 매바위를 눈앞에 둔 숲길이었고, 새소리를 쫓아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온 기자는 무심히 집으로 돌아갔다. “피잇, 피잇, 삐비비비비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새소리가 주말 아침이면 컷바위를 울렸지만 기자는 산을 찾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를 만난 것은 그 무렵이다. 우리의 산과 들, 습지와 바다에 사는 새소리가 담겨 있다는 도감과 CD를 여겨보던 기자는 “피잇, 피잇, 삐비비비비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새소리를 무심결에 읊조리고 있었다. 아뿔사! 날갯죽지 한 끝 보여주지 않던 그 새를, 그 울음소리를 도감과 CD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 등덜미가 가려워졌다. “하얀 눈이 내린 겨울 숲 가득 울려 퍼지는 딱따구리의 드러밍 소리, 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호젓하게 걸어갈 때 들려오는 휘파람새 노랫소리, 파도가 철썩이는 어느 해안가를 떠도는 바다적박구리 울음소리”라고 씌어진 그럴싸한 도감의 카피를 눈으로 좇으며 CD를 오디오에 밀어 넣었다.

“쭈잇, 쭈잇” “삐찌, 삐찌, 지지지깃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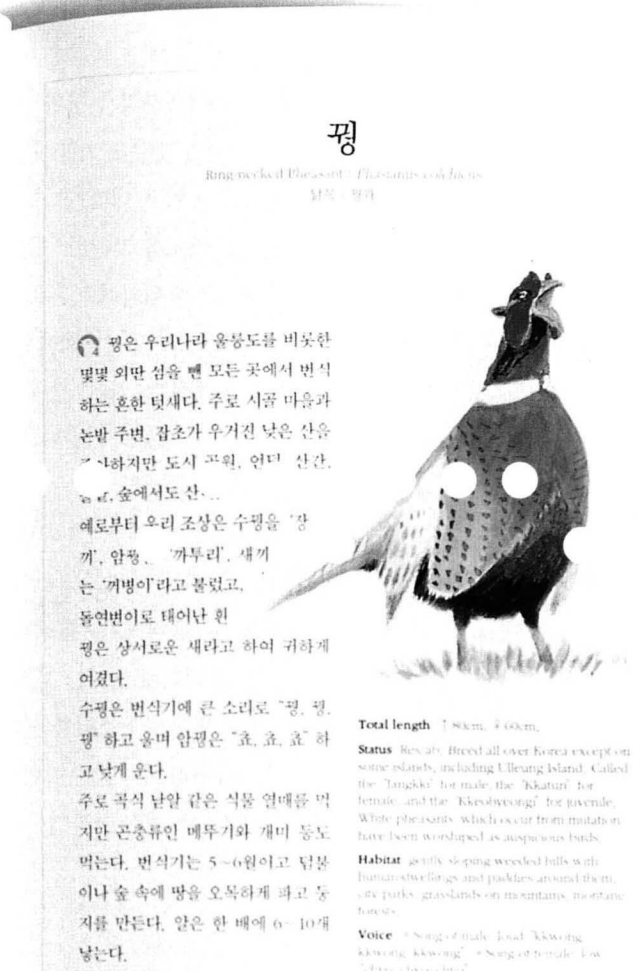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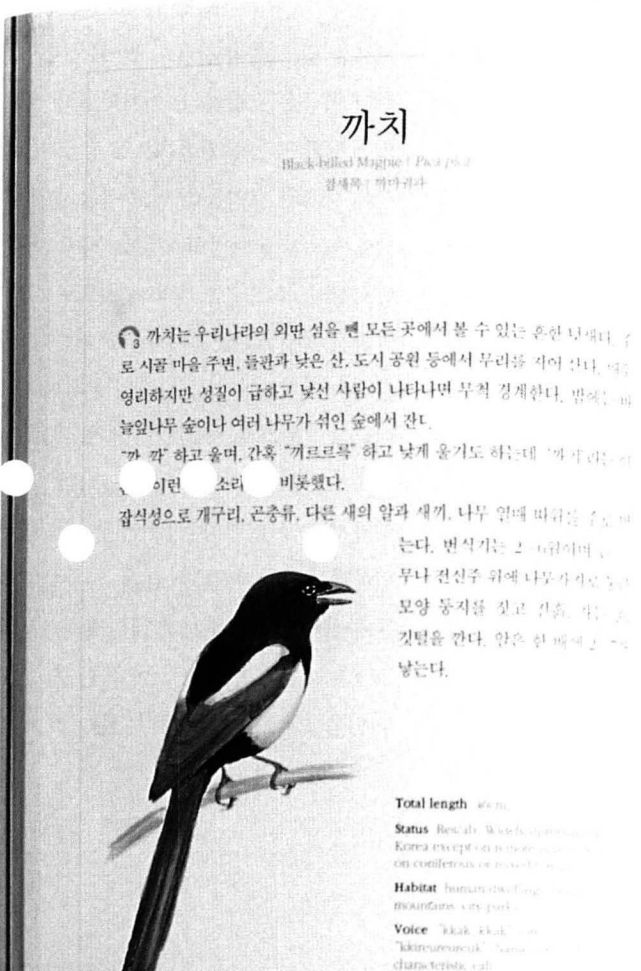
제비의 울음을 시작으로 참새와 까치, 꿩과 멧비둘기 등 마을과 숲에 사는 새들의 울음이 탁한 방안을 청명하게 울렸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새들의 울음은 낮선 울림을 주었고, 이름도 낯선 직박구리, 밀화부리 같은 새들의 울음은 외려 친근한 울림을 주었다. 도감 속 열대여섯 줄 가량 되는 각기 새의 정보가 부족하다 싶었지만, 한 새마다 1분 가량 편집된 CD 속의 새소리와 맞춰 읽노라면 글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한 새의 울음이 잦아 들면 손은 자연스레 책장을 젖히고 있었으니. “술쩍다, 술쩍다” 우는 소쩍새, “쭉둑, 쭉둑” 우는 쭉둑새, “호-호호웃-, 호호케요” 우는 휘파람새 등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몇 가지 새소리를 지나 동고비 울음에 이르러 기자는 슬며시 책을 덮었다.

요란스레 떨어지는 계곡 물살소리를 뚫고 명징하게 들리는 “피잇, 피잇, 피잇” “삐비비비비비”. 눈을 감는 순간 기자는 한 칸 방이 아닌, 청계산 매바위를 앞둔 숲길에 서 있었다. 애야, 너는 동고비였구나. 날갯죽지 한 끝 보여주지 않고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한 너는 동고비였구나. “참새목, 동고비과. 겨울에는 무리를 이루어 살고, 봄, 여름에는 단독 또는 암수가 짝을 지어 산다. 주로 넓은 잎나무 숲이나 산지에 깃들여 산다.” 회색 등에 흰색 가슴, 작지만 날렵한 날개 밑으로 연갈색 털을 가진 14센티미터 크

기의 새, 동고비... 이후 쏟아지는 산새의 울음은 기자를 소리의 원적지로 데려다 놓았다. 북한산에서의 휴식이, 수락산에서의 낮잠이, 설악산 야간산행의 두렵던 걸음이, 삼악산 입구 기암절벽 앞에서의 탄성이 떠올랐다. 호랑지빠귀, 산솔새, 어치의 울음에는 그곳이 어디었던가 분주히 걸음을 옮겨야 했다. 기억 속의 새소리는 편린에 불과했지만, 분명 그때 그곳에서 들던 새소리가 분명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인위적인 울음이 아닌, 그 배경으로 여음인 듯 매미가 경쾌하게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으며, 인가와 가까운 곳인 듯 “쿵” 하는 개 짖는 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깊은 계곡인 듯 “돌돌돌” 계곡물소리가 섞여 있었다. 13년 동안 철따라 산과 들을 오가며 자연 속의 새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녹음장비를 들고 어디든지 달려갔다는 녹음자의 수고로움에 고개가 숙여졌다. 한동안 산을 찾지 않은 기자의 두 발이 부끄러웠으며, 더는 “이름 모를”이라 쉽게 끄적였던 문장들까지 부끄러웠다. 그렇게 산을 찾아 다녔어도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라는 동고비의 울음조차도 기자는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도 그때 “피잇, 피잇” 했던 동고비 울음소리는 “네가 산을 오른다고 폼을 잡지만, ‘이름 모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
이우신 글·유희상 녹음 | 다너뮤지다커서그림 | 현암사 | 96쪽 | 값 20,000원(CD+도감)





자
 훌 딱 빠 졌 다 박 바 쥬 우
 쪽

까 악 - 까 악 - 짹 - 짹 - 짹 -



운운하는 너는 급히 산을 오르내리는 J보다 잘 날 것 없지 않느냐”는 조롱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는 익숙하고도 낯선 우리 새소리 한 가지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다. 얇고도 투명한 그 울음의 감동은 두꺼운 고전을 독파한 뒤 느끼는 감동에 견줄 만하다. 쇠유리새를 말하며 “작은키나무나 덩굴 속에서 울 때가 많은데 가늘게 ‘칫, 칫, 칫’ 하고 쇠소리를 전주곡처럼 내다가 ‘쭈릿, 쭈릿, 쭈릿, 칫, 칫, 칫’, 팔색조를 말하며 “큰키나무 꼭대기의 가지에 앉아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호이-호, 호이-호’ 하고 통소소리를”, 중대백로를 말하며 “무리를 지어 사는 곳에서는 ‘가락, 가락, 가락, 가락’ 한다는 문장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다. “쿄, 쿄, 쿄, 쿄, 쿄, 쿄, 삐웃, 삐웃, 삐웃, 삐웃, 삐웃, 뽕, 뽕, 뽕” 우는 쇠뚝부기도 아닌 쇠뚝부기사촌, “카, 카, 카, 코”하고 우는데 “훌딱-벗고”로도 들린다는 검은등뚝부기, “훌딱 자빠졌다” “쪽박 바뀌쥬우”로 들리기도 한다는 두견이에 이르면, 글이 가진 한계를 벗고 울음소리를 제대로 담아보려는 글쓴이의 마음까지 아름답게 읽힌다. 관심 있게 도감을 보고 새소리를 들은 이라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

리 새소리 백가지’ 라는 제목과 달리, 일흔한 가지 새소리에 얼마나 섭섭할 만도 한데, 도감의 마지막 새 바다적박구리의 ‘무얼 그것 가지고 섭섭해 하는가’ 하는 “쫓쫓, 쫓르르” 소리를 들으면 섭섭했던 마음도 이내 가벼워진다.

도감을 덮고 새의 울음도 잦아든 지금 사위는 적막하나 마음은 요란하다. 기자와 J가 산을 오르는 방법은 달랐으나, 종종걸음으로 성급하던 J역시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들을 담고 산을 올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금을 굿듯 단정했던 그 기준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마리 동고비가 가르쳐준다. 울림도 없는 그래서 메아리도 없는 기자의 공허한 목소리였을 뿐이라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마음의 소리 백가지》로도 읽힌다. 마음의 휴식을 넘어 치유까지 원한다면 도감과 CD를 함께 즐겨보기를 권한다. 너무 무심하게 도감을 보고 새의 울음소리를 듣다가는 그것들의 뾰족한 부리에 마음 한 쪽 ‘콕콕’ 찌릴 수도 있음을 끝으로 밝혀둔다. **한주**

글 박용두